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공식카페: www.noworry.kr 전화: 02-797-4044~6 팩스: 02-797-4484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메일: noworry@noworry.kr

■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7회 연속 하반기 토론회(2013. 9. 17.)

9 24일(화)부터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사 연구 7회 연속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은 9월 24일(화)부터 하반기 7회 토론회를 개최함.
- ▲ 상반기의 4회 연속 토론회, 전국 5,470명 대상 설문조사를 발표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영유아사교육의 실상을 파악하고, 영유아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음.
- ▲ 영유아사교육은 아동의 인지적 발달은 물론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 하반기 7회 토론회를 통해, 영유아사교육 유발 요인(△사립초등학교 비교육적 과잉 영어교육 및 △파워 블로그 등 인터넷 및 언론 환경)을 분석하고, △유치원 누리과정/특별활동의 초등 수학 선행 여부 점검, △유치원 표준 교육과정(‘누리과정’) 분석 및 △정신과적 영향 차원의 문제점 분석, △정부의 무상보육비 지원 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 ▲ 9월 24일에는 그 첫 번째 토론회로 ‘유치원 등 누리과정/특별활동의 초등 수학 선행 여부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
- ▲ 이 과정을 모두 끝낸 후, 올해 말 영유아 사교육 문제 개선 대책을 내놓고, 아울러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보다 근본적이고 실천적인 운동을 전개할 예정임.

상반기 출범한 영유아사교육포럼(대표: 임미령)은 영유아사교육 실태파악을 위한 4차 토론회, 전국대상 설문결과를 발표한 국회 토론회(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공동주관) 등을 통해, 영유아사교육의 실상을 파악해왔습니다. 상반기의 연구 결과들은 각종 언론에 소개되며 영유아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기여했고, 사회적으로 영유아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전국 5,470명 대상 설문 결과에 따르면, 취학전 아동 71%가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어, 영유아기 사교육이 보편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경험 아동과 미경험 아동 간 영어사교육비 50만원 이상 지출 비율에 62배의 차이가 났고,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강률은 사립초 아동이 공립초 아동에 비해 4.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비싼 교육비에도 불구하고 사립초 재학을 위한 전단계로 인식되는 등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유아시기의 사교육은 사립초등학교 등의 상급학교 요인, ‘빠를수록 좋다’는 가설로 불안 마케팅을 하는 사교육 업계 요인, 영유아기 영어사교육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문제 등, 입시사교육 문제와는 또 다른 영유아시기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큼니다. 영유아사교육문제는 오랫동안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유아교육의 역사상 공교육과 사교육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 무상보육정책과 이에 따른 지원금 문제가 맞물리며 영유아사교육에 얽혀있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유아 시기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은 아동의 인지적 발달은 물론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영유아사교육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영유아사교육 유발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누리과정 등을 파악하며, 영유아사교육의 부작용을 알리는 등, 하반기에는 더욱 심도있는 내용으로 영유아사교육 문제를 파헤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사교육의 유발요인으로 지목되는 사립초등학교, 인터넷 환경, 가드너 등의 교육가설 등을 해부하며, 누리과정과 무상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 및 정신과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7차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행사명: 영유아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7회 연속 토론회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산하 영유아사교육포럼
- **일 사:** 9/24, 10/1 10/15, 10/29, 11/13, 11/26, 12/10 (화) 오후 2시(*5차는 11/13, 수요일 6:30 개최)
※ 9/24(화) 1차 토론회는 오후 3시 개최, 『수학사교육포럼』 과 공동 주최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문 의:** 이슬기, 박민숙 연구원 (02-797-4044, 내선 212)

횟수 및 일시	토론회 명	발제 및 토론 (■발제자)
1차 토론 9/24(화)3시	유치원 등 누리과정, 특별활동의 ‘수학’ 내용의 초등 교육 선행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수일(수학사교육포럼 대표) <input type="checkbox"/> 임미령(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 <input type="checkbox"/> 장혜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input type="checkbox"/> 이정옥(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2차 토론 10/1(화)2시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① : 사립초등 학교의 비교육적 과잉 영어 교육의 실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박민숙(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슬기(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3차 토론 10/15(화)2시	유치원 등의 표준화된 교육과정(‘누리과 정’)의 도입 배경과 내용 분석	추후 발표함
4차 토론 10/29(화)2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무상보육비 지원 등의 실태와 문제점 점검	추후 발표함
5차 토론 11/13(수)7시	‘정신과적 영향 차원’에서 살펴본 영유아 사교육의 학습 효과 및 문제점	추후 발표함
6차 토론 11/26(화)2시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② : 파워블 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환경과 언론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박민숙(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슬기(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7차 토론 12/10(화)2시	사교육상품의 주요 교육 가설 타당성 분 석 점검(프뢰벨과 몬테소리, 가드너 등)	추후 발표함